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과 응집성 실현* **

김 광 희

(광양보건대학)

<Abstract>

Kim, Kwang-Hee. 2004. Discourse Marker 'in-ja' in Korean : Aspects of Information-Induction and Cohesion. *Korean Semantics, 15*. In this paper I will outline a information-inductional function and textual analysis of cohesion through the discourse marker 'in-ja' in the korean language. Cohesion can be defined as the set of resources for constructing relations in discourse which transcend grammatical structure(Halliday 1994:309). And it's one aspect of the study of texture. For the question about the status and function of 'in-ja', which is one of the discourse marker in Jeonnam dialect in Korean, we will analyse oral narratives and extract the discourse marker 'in-ja' in there. The result of this process is that discourse marker 'in-ja' serves the complex discourse function : as information induction, information switching, and information addition. Finally the cohesion relation in text would be constructed from these functions.

핵심어: 담화 표지, 응집성, 정보, 텍스트, 구술담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2-A00037).

이 논문은 '전남 동부 방언의 구술담화에 나타난 인칭직시소의 형식과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2004. 국어학 44집)과 함께 '전남방언 구술담화의 직시체계 연구'라는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분이다.

**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의 지적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과 놓쳐버린 문제까지 생각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을 오류와 결핍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전남지역 방언화자들의 구술 민담에 나타난 담화 표지로서의 ‘인자’가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방언의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하여는 이미 임규홍(1996)에서 ‘대조’의 시간부사 ‘이제’가 담화 표지 ‘인자’로 전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인자’의 담화 기능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인자’의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 가운데 문맥 정보의 형성과 정보 유도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진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의 ‘인자’가 담화 표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 전환의 방향이 문맥 조작을 통한 텍스트의 응집성 내지는 응결성을 확보하고, 텍스트의 구성을 확장시켜가는 기능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구술담화의 텍스트적 성격을 살펴보고, 구술담화의 서사 문맥 형성과 그 확장의 과정을 분석하며, ‘인자’의 일반적 기능과 서사 문맥 속에서의 담화 표지로서 그리고 응집성 확보의 기능으로서의 작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텍스트 형성의 기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응집성(cohesion) 실현의 문제를 주제가 갖는 정보(information)의 흐름과 텍스트 통합 수단의 분석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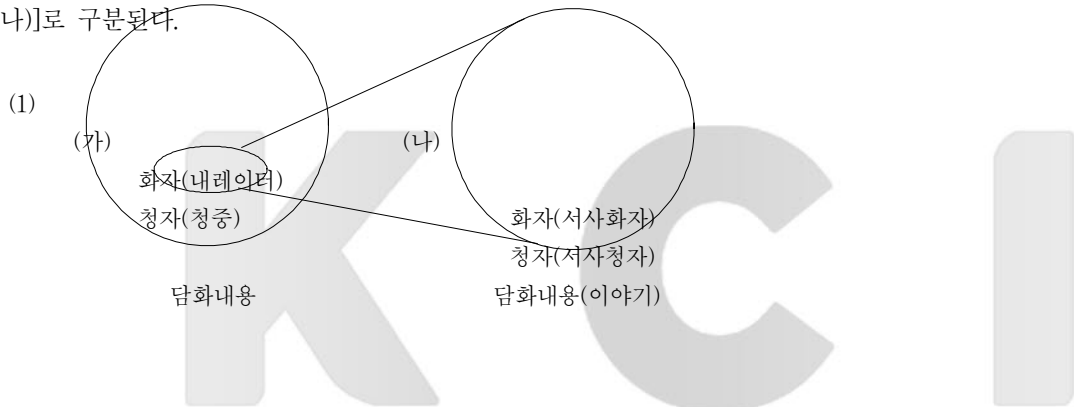
2. 구술담화의 텍스트적 성격

2.1. 담화란 말의 구체적인 전달 장면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전달된 언어표현으로서 화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짜여진 것이다(노석기 1990:94). 담화는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표현을 지칭한다. 글말로서의

단위를 가리켜 '텍스트'라 하고, 입말 단위를 구별지어 '담화'라 일컫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양자의 구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한다.

고영근(1999)에서는 텍스트의 기본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¹⁾, 이를 토대로 텍스트를 4가지 유형 — 발화텍스트, 작품텍스트, 문서텍스트, 영상텍스트 —으로 나누었다. 그 중 발화텍스트를 다시 대화텍스트, 독백텍스트, 독화텍스트, 서사텍스트로 하위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구술담화는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를 음성언어의 형식을 빌려 남에게 이야기하는 텍스트이다. 그것은 남에게서 듣거나 꾸민 개인서사담일 수도 있고,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구비텍스트도 포함된다. 그것이 문자로 가공의 단계를 밟게 되면 서사적 소설텍스트로 변모될 수 있다(고영근 1999:264~268).”는 점에서 서사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2.2. 그러나 구술담화는 구성상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담화 맥락 속에 존재하는 구술자와 청중 그리고 구술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외피구조[(가)]와 담화 내용으로서 서사텍스트인 서사구조[(나)]로 구분된다.



1) 제보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선언기능, 감동기능 등(고영근 1999:260). 이 분류는 이미 Brinker(1985)에서 상호 인간적인 관계의 의사소통과 기능적인 국면 아래에서 설정한 텍스트의 제보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선언기능의 분류와 같은 견해이다.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는 담화 내용이 별도의 맥락을 구성하여 텍스트를 이루는 일은 드물지만, 구술담화는 대화와 서사의 두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화 속의 화청자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서사텍스트 내의 화청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담화는 구두적 형태의 텍스트로서의 속성과 동시에 소설과 같은 문자적 텍스트로서의 속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제 실제 조사된 구술담화를 통하여 이러한 텍스트 구성의 이중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술담화의 텍스트적 성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²⁾

(2) 청자 : 얘기 좀 해주세요.

화자 : 영, 요(녹음기) 바로 준비됐겠다?

청자 : 예

화자 : 옛적 사람 이야기 하나 허까?

청자 : 옛적 사람이요?

화자 : 응.

화자 : 옛적 사람이 즈그 어마이가 홀로 살아. 홀로 사는디, 아 전에는 짚을 갖고 신을 삼는다 이말이여. 옛날에는 짚새기를 삼아갖고 오늘 한 켄레 삼아 주면 아 고만에 별 아침에 보면 떨어졌고 아무리 봐도 아 밤에 어떻게 걸음을 걸어서 저 신이 떨어졌으꼬. 아들이 소자라. 아 그래 인자 하래 저녁에는 신을 삼아 당그다가 당그다가 왜 신이 떨어졌느냐 말도 못허고 아 그래서 가만히 아침에 망을 붓께, 아 저녁에 인자 망을 찾아놓고, 얘기를 따둑따둑 채와 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살퓌 나가는다. 인자 산지기 영깁 하나 홀애비가 살아. 홀애비가 상께 그 영감한테로 저녁에 가자고 아침에 붓께 날새도록 붓께 아침에 방에 짚 때나 되면 내려오드래. (화자 : 옛날에는 도구테로 짚어 묵었거든 잉.)

아 그 이튿날부터 짚을 곤쳐, 즈그 아들이. (중략) 그 짚을 곤쳐 곤칭께, 동네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이 자네는 일이 없는 감네. 그 짚을 어째서 그리 곤치는가?” 형께

“아, 짚을 곤차 노면 나무하러 가기도 좋고 글 안 허것소.”

2) 이 글에 소개되는 구술담화는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광양지역 민담 자료(1983)와 연구자 본인이 2001년 채록한 일부 담화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 인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자든지, 그 산지기 영감집 사립에까장 딱 좋게 신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곤쳐서,

“그 신을 왜 어무이가 거그 땡김시러 떨어치요.”

화자 : 그렇게 소자 노릇을 했드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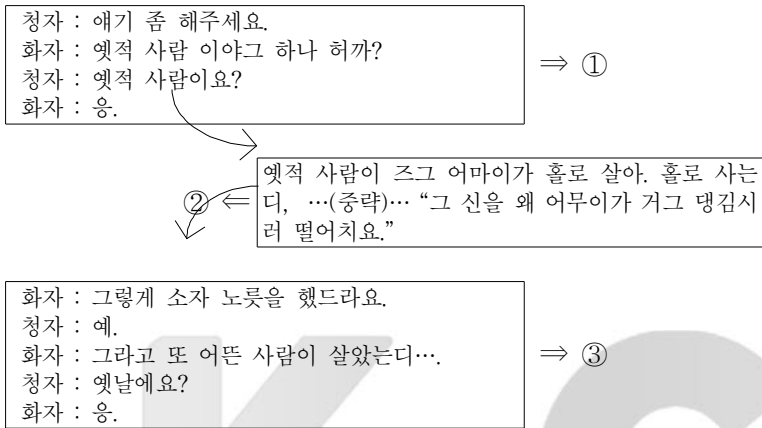
청자 : 예.

(화자 : 그라고 또 어뜰 사람이 살았는디……. / 청자 : 옛날에요? / 화자 : 응.)

(후략) (광양지역 민담)

이 구술담화를 살펴보면 (1)에 말한 바의 구조와 같이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3) 참고].

(3)



구술담화는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사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인 ② 외에 현장성을 반영하는 대화텍스트 ①, ③이 서사텍스트의 외피(shell)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구술담화는 대화적 텍스트와 독화적 텍스트의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각각의 속성에 대하여 예를 들어 상론하기로 한다.

2.3. 구술담화의 첫 번째 성격은 독화적 텍스트라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독화적 텍스트는 연설로서, 한 사람의 화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구술담화는 비록 독화적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두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제되지 않는 구두어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³⁾

- (4) 가. 옛적 사람이 즈그 어마이가 홀로 살아. 홀로 사는다.
- 나. 홀배비가 상께 그 영감한티로 저녁에 가자고 아침에 봉께 날새도록 봉께 안 칙에 방에 찢 때나 되면 내려오드래.
- 다. 아 전에는 짚을 갖고 신을 삼는다 이말이여.
- 라. 옛날에는 짚새기를 삼아 갖고 오늘 한 결레 삼아 주면 아 고만에 넬 아침에 보면 떨어졌고 아무리 봐도 아 밤에 어떻게 걸음을 걸어서 저 신이 떨어졌 으꼬.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라는 것은 (4가,나)에서와 같이 동일 어구가 반복되거나 (4다)에서 보듯 불필요한 발화가 덧붙는 점 등에 근거한다. 뿐만 아니라 (4라)와 같이 문맥의 긴밀성이 약화되어 있다. ‘옛날에는 짚새기를 삼아갖고’와 ‘오늘 한 결레 삼아 주면’, ‘넬 아침에 보면 떨어졌고’ 등의 표현은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들 표현이 한 문장으로 연쇄됨으로써 문맥 형성의 긴밀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구술담화의 이러한 특징은 화자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적 발화 습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다. 화자는 발화 구성의 긴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응집성 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

3) 구어는 여러 면에서 문어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구어는 문어에 비해 표현이 간결하고 즉흥적이며, 상황 의존적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문법적 오류나 규범 이탈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구어는 문어의 비격식적·비표준적 현실형으로 판단되어 왔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실질적 사용 형태의 대표적인 예가 방언화자의 담화일 것이다.

(5) 이 한 수백 년 전 이야긴데, 여기 광양에 최 사인이라고 하는 선비가 하나 살았어. 그분은 즈그 아버지는 예-건령이여. 그런데, 건령이란 것이 그때는 평민도 아니고 상놈이었어. 상놈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이 인자 관서재, 그때는 사설 서재도 있고 이 최 사인이란 사람은 건령의 아들이기 때뒀로, 상놈의 아들이기 때뒀로 촌에 가면 네 상놈! 이전에는 양반은 이런 상에 앉지만 상놈은 글방 밑에서 선비님들 허고 절을 허고 이런기 때뒀로 거그는 땡길 수 없고 관서재에 땡기는데, 하루저녁은 인자 즈그 집에서 광양읍이고 서재는 좀더 거리가 좀 먼 딘디, 거그로 갈라니께 밤에 비가 왔어.(광양지역 민담)

(5)의 구술담화에서는 대명사나 지시사를 통한 응집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밑줄 친 ‘그분, 즈그, 그이, 그때, 거그’ 등의 표현과 명사 표현 ‘건령’ 등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맥락 응집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구술담화 속에 ‘개념-설명/논평’의 구조를 이루는 표현이 쉽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5)의 구술담화 속에서 발견되는 (6)과 같은 표현이 그러하다.

- (6) 가. 즈그 아버지는 건령이여 - 건령이란 것이 그때는 평민도 아니고 상놈이었어.
- 나. 그이 인자 관서재, - 그때는 사설 서재도 있고
- 다. 하루저녁은 인자 즈그 집에서 - 광양읍이고 서재는 좀더 거리가 좀 먼 딘디
- 거그로 갈라니께 밤에 비가 왔어

이는 개념이나 상황을 부연하거나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고 상황 맥락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자의 발화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2.4. 구술담화는 독화적 텍스트의 성격 외에 대화적 텍스트로서의 속성을 겸하여 갖고 있다. 대화적 텍스트는 복수의 대화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두적 형태의 텍스트이다. 서사텍스트 역시 그 성격이 독화적 텍스트일지라도 화자와 청자로 구성되는 담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른 독화적 텍스트와 구별되는 점이다. 구술담화의 대화적 텍스트와 독화적 텍스트로서의 속성은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그 독특한 양상을 드러낸다. 구술담화는 대화적 텍스트임에도 화자에 의해 담화와 이야기가 주도되는 화자 일방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반응과 질문에 화자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화자 자신이 구술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복하기도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부가·부연하는 등의 즉흥성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7) 저그 저 경상도 인안동(청자 : 예) 애긴디, 그 저 큰애기가 하나 어찌뎡 먹고도 국고도 몬있어서 저 혼자서 살살 돌아 뎡김서 어디 가 밥이나 쪼깐씩 먹고 이려고 사는디 그 장뽕뎡이가 있다가 어찌게 굿잉께

“저 큰애기 이름이나 하나 짓자.”

“그래 제비라 짓자.”

(청자 : 제비요?) / (화자 : 응 제비)

“그래 제비라 짓세.”

...중략...

“아, 나가 이려고 있는 사람이 뎡 천 냥이 있으거이나. 돈 천 냥을 준다 하요. 난 돈도 모르는 사람이라.”

아 그래 안 가져 가닝께 저 사람이 저 그때는 행정으로

(청자 : 행정이요?) / (화자 : 그때는 사법도 없고 행정만 있을 때인디)

그 원한테 가서 원정을 했거등.

...중략...

“그리 말고 네도 나이가 근 오십이 되가니께 저 집이나 한 채 지으라.”

그래 집을 짓는다.

(화자 : 그때 돈으로 천 냥이면 저 지방 돈으로 천만원보다 나서 많해요.)

(광양지역 민담)

(7)에서도 구술 도중 청자의 물음과 반응에 대하여 화자가 진행 중인 이야기의 흐름을 조정 — 반복, 응답, 부연 등 —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대화텍스트가 일반적으로 화제에 대하여 화자와 청자간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본적인 공감

대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있음에 비하여, 독화적 텍스트로서의 구술담화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포괄할 만한 넓은 의미론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텍스트로서의 구술담화의 속성을 (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K C I

(8) 구술담화의 텍스트적 속성

독화적 텍스트로서의 속성	대화적 텍스트로서의 속성
·한 사람의 내레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설이나 발표문의 성격을 갖는다. ·의사소통 참여자들간에 경험이나 지식 등의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론적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다.	·화자와 청자 등 복수의 대화 참여자가 존재한다. ·정제되지 않은 문체와 형식이 특징이다(어휘나 어구의 반복, 긴밀성이나 응집성의 약화). ·화자의 개성이 강하다. ·청자의 반응에 민감하다.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구술담화가 텍스트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구술담화의 텍스트적 속성 가운데 응집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구술담화의 응집성 실현

3.1. 문장이 텍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을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텍스트를 문장의 집합으로 인정하여 상위에 두는 기호론적 관점과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일차적인 언어 단위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⁴⁾ 소설 작품을 예로 든다면, 여기에는 단순히 텍스트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훨씬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치밀하게 선택된 단어나 형태소는 물론 문장 부호 하나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함축적인 문장의 표현법, 단락의 배치와 시간과 공간의 조합 등 문법 외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언어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텍스트를

4) 고영근(1990)에서는 Isenberg(1977)의 견해를 소개하며 이야기의 두 가지 개념 - 명제적 견해와 동태적 견해 - 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구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소단락이나 상황들이 단일한 주제를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될 수 있다. 여기 그 한 예로서 응집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3.2. 문장이 통사적 단위(syntactic unit)인데 반해 텍스트는 조작 절차적 단위(operational unit)이다. 텍스트적 기능이란 문장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지 않다. 이는 문장들의 내적 구성과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화하는 전언 및 전언과 맥락간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Halliday 1973:107). 그러므로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위한 동적(dynamic) 과정이다. 텍스트가 텍스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언 곧 정보 단위간의 정보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Beaugrande & Dressler(1981)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① 결속구조(cohesion) ② 결속성(coherence) ③ 의도성(intentionality) ④ 용인성(acceptability) ⑤ 정보성(informativity) ⑥ 상황성(situationality) ⑦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이 그것이다.⁵⁾ 이 가운데, 텍스트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응집성 혹은 응결성⁶⁾이라 부르는 결속의 문제이다.⁷⁾

Brinker(1985)에서는 텍스트 응집성을 문법적 응집성과 주제적 응집성으로 나누고, 응집성의 문법적 조건은 재수용의 개념으로, 주제적 응집성의 조건은 주제와 주제 전개의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⁸⁾

5) 김태욱, 이현호(1995 : 8) 재인용.

6) 이성만(2004:25f)에서는 일정한 문법적인 수단들을 통한 텍스트의 표층 요소들 간의 연결을 '응결성'이라 하고, 텍스트의 개념적인 결속 관계, 곧 개념과 관계의 기본적인 정세를 나타내는 것을 '응집성'이라 구별할 수 있으나, 이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7) Beaugrande & Dressler(1981)에서 결속구조와 결속성으로 설명한 부분을 Brinker(1985)에서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사적 용어인 '결속'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목적과 텍스트이론에서의 개념 전달을 명확히 규정하는 뜻에서 '응집'의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

8) 고영근(1999:141)에서는 결속구조에 해당하는 텍스트다움의 언어적 조건으로서 '응결성'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응결성은 자소·음운·형태 통사론적 특징에 의하여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제와 의미·기능상의 절차에 따라 한 텍스트로 묶는 기제를 구별하고

텍스트다움을 결정하는 응집성은 결속과 같은 통사론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의미·기능상의 기제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KCS I

있는데, 내용면에서 Brinker(1985)의 구분과 거의 유사하다.

- (9) 가. 노령 고개 아래 목란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한 토막에 따르면 이 마을 한 주막집 주인의 딸이던 갈애는 빼어난 미모와 가무, 시문 실력으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노령 넘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선비들이 그의 매력에 빠져 며칠씩 놀러앉거나 아예 서울행을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 이 ‘계집 하나 때문에 나라의 동량이 다 사라지겠다’며 차객을 보내 갈애를 죽였는데, 갈애가 쓰러지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바람이 불면서 목란마을 옆 바위가 갈라져 사람이 웃고 있는 표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이 담긴 것이 갈애바위다.
- 나. 전북 정읍시 입암면에도 갓 모양 바위가 많은데, 옛길은 1번 국도의 동쪽 골목, 입암초등학교 옆으로 지난다. 시작은 좁은 골목이지만, 길을 따라 걷다보면 갈애의 전설이 담겨 있는 노령(장성 갈재)이 나온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여성의 눈웃음치는 모양이 새겨진 갈애바위(일명 눈썹바위).[주간 동아 제454호(2004.9.30. 동아일보사 발행), 118~130].

(9가)의 글에는 몇 가지 지시어나 대명사가 사용되어 각 문장 간의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 즉 ‘마을’, ‘소문’, ‘전설’ 등에 관한 재수용을 통하여 텍스트로서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9가,나)의 글은 각각 갈애전설의 내용과 지역 소개를 담은 다른 성격의 글로 읽힌다. 그렇지만 이 두 글은 서로 어울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다. 무엇이 이러한 연결을 가능케 하는가? 쉽게 말하면 (가)와 (나)는 모두 ‘갈애(바위)’라는 어휘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이 바위와 관련 있는 것이다. 두 글의 연관성을 찾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근거로는 동일한 어휘의 반복과 동일한 정보(주제)의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관되는 글은 서로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글이라면 그 글을 구성하는 하위의 단위 텍스트(문단)들 간에 긴밀한 응집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텍스트성의 판별은 텍스트 속의 응집성 문제로 귀결된다.

Halliday and Hasan(1976:4)은 이 응집성을 순전히 의미론적 개념으로 보고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각 부분들간의 의미 관계로 규정

하였으며, 응집성이야말로 하나의 텍스트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응집성은 텍스트 속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의지하여 해석되는 현상에서 중요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⁹⁾ 또한 응집성의 구체적인 실현은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지시(reference), 대치(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lexical)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만(1994:3)에서도 임의의 문장들이 공간적, 시간적으로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순전히 공간적인 자질들을 통해서만 응집적 특성으로 보일 때, 이 문장들을 서로 독립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고영근(1990:3)에 소개된 Harweg의 견해에서 대명사를 통한 언어단위의 통합체를 텍스트로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응집성 여부가 텍스트성 판단의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응집성이 독립된 문장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냐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이 응집성은 Halliday and Hasan(1976)에서 말하는 지시, 대치, 접속, 생략 등의 몇 가지 통사-의미적 기제나 텍스트 언어학에서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자질들의 연결, 또는 대명사를 통한 통합 등의 기법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텍스트 형성과 응집성 실현의 문제를 주제로 논의를 좀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담화 표지 ‘인자’에 주목하고, 텍스트 내에서의 그 의미 기능이 발화 단위간의 응집성 확보를 통하여 텍스트성을 발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4. 의미적 결속장치로서의 담화 표지 ‘인자’

9) Halliday and Hasan(1976)에서도 이야기에 대한 용어를 text와 discourse의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4.1.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는 담화상에서 의미적 응집성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속 기능의 어휘들을 일컫는 용어로 담화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다. Halliday and Hasan(1976)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nd, but, because, I mean, by the way, to sum up 등을 응집성 문체에 포함하여 다음으로써 이 어휘들이 담화상(특히 기록 텍스트)에서의 접속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응집의 장치로 제안한 바 있다.¹⁰⁾

이기갑(1995)에서는 발화의 의미적 결속을 돕는 장치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담화 표지를 정의한 바 있고, 임규홍(1996)에서는 우리말 연구를 대상으로 담화 표지의 규정문제를 정리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담화 표지를 담화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지를 포괄하는 상위범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하위범주로서 기능, 형태, 환경, 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¹¹⁾ 두 연구 모두 그 논의의 대상을 시간부사이면서 담화 표지로 기능하는 우리말 '이제'와 '인자'의 기능을 살피고 있어, 필자의 연구와 그 관심의 방향이 유사하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임규홍(1996)에서 제기한 국어 담화 표지의 범주화 제안에 따라 이 글에서 다루려는 전남방언 형태 '인자'를 어휘적 담화 표지(lexical discourse marker)의 하나로 인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휘 '인자'가 담화 문법론 차원에서 논의되기에 충분한 담화 표지로서 특성을¹²⁾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 이와 유사하지만 더 밀도 있는 기술이 Schiffrin(1987:31)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는 담화 표지를 접속사(and, but, or), 감탄사(oh), 부사(now, then), 어휘구(y'know, I mean) 등의 변형된 어휘류로 구성된 언어 표현의 집합이라 규정하고, 선·후행 발화 사이의 의존성을 표현하거나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유지하는 장치로 인정하였다.

11) 임규홍(1996:3)에 정리된 상위범주로서의 담화 표지의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능 중심 : 디딤말, 담화 개시어, 관심획득표지(attention getters)
- ② 형태 중심 : (담화)불변화사, 간투사(환투사)
- ③ 환경 중심 : 담화 (화용) 표지
- ④ 현상 중심 : 군말, 입버릇, 머뭇거림, 덧말

12) 임규홍(1996:4)에 따르면 '인자'가 어휘적 담화 표지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담화 표지가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라 보았다.

- ① 담화(입말)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다.

여기에서 전남방언 화자의 담화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자’가 본래 시간부사였던 것이 담화 표지로 변화되었음을 밝힌 이기갑(1995:269)의 연구와 ‘인자’의 담화 표지적 특성을 살핀 임규홍(1996:9~11)의 연구의 내용을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들 선행 연구의 내용을 수용하되, ‘인자’가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각을 모으려고 하며, 이를 통해 선행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덧붙이려 한다.

4.2. ‘인자’는 의미적 결속장치로서 기능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인자’의 담화 기능을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자’를 통해 구성되는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도 될 수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문제이다.

이기갑(1995)에서는 ‘인자(이제)’가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 후행 발화의 의미적 연결을 도우면서, 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그 담화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임규홍(1996)에서도 ‘인자’가 구정보 뒤에서 신정보를 이끄는 속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담화 속에서 ‘붙듦, 바뀜, 주의 집중, 시간 벌기’ 등의 복합적인 담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에서는 ‘인자’의 중심 기능을 구정보인 선행 발화와 신정보인 후행 발화 사이의 의미적 연결 내지는 접속의 기능어로 본 것이다. 이 기능이 선·후행 발화가 ‘인자’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텍스트성을 확보하여 한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결속 즉 응집성의 문제를 더 깊이 천착하였다고 보기에 는 미흡한 점이 있다.

-
- ②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 ③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 ④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 ⑤ 사용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 ⑥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 ⑦ 모든 담화 표지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이러한 논의의 논리적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인자'가 발화와 발화 사이에서 접속기능어의 위치에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발화의 연결로 본 선행 연구의 태도 때문이다. 임규홍(1996)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가져다가 논의의 출발을 삼기로 한다.

- (10) 가. 우리가 인자 진해에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전근가시는 바람에 인자 울산 갔고 그라다가 인자(붙들-선행 담화와 음성적 결속)
- 나. 이 고개를 넘어가서 인자 어떤 고개를 넘어가서...(바뀜-서술어 뒤 실현)
- 다. 날이 인자 굿을라카마 기름 주무이가 누구리하마...(주의 집중)

이 예들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임규홍)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구분을 '인자'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임규홍(1996:11~18)에서는 (10가)에 대하여 담화 표지 '인자'가 선행 발화와 밀접한 담화적 관계를 가지고, 말할이가 선행 발화의 내용을 아직 끝맺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10나)에서 담화 표지 '인자'는 선행 발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선행 발화를 후행 발화로 바꾸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10다)를 통하여서는 '인자'가 후행 정보에 대해 주의 집중을 기대하게 하는 기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발화 구성의 선후를 나누고 이 두 발화 상에 존재하는 '인자'의 접속 기능을 살핀 것에 다름 아니다. 제시된 예와 설명을 정리하면, '인자'는 선행 발화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후행 발화의 의미로 전환시키는 발화 전환의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자'가 접속부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속성에 연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인자'에 대한 이런 의견은 여러 연구에서 대동소이한 논지로 보편성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담화 표지 '인자'가 발화 단위가 아닌 텍스트에서 특히 구술 담화에서는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인 문장이 단락을 형성하고 이 단락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한다고 할 때 이들이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것

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응집성의 문제가 지시의 문제나 의미적 동질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휘적 연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텍스트 이론이나 담화이론들이 문법 이론 지향적 한계를 노출시킨 것도 이러한 도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응집이란 과연 무엇이 서로 응집한다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봄직하다.

5. ‘인자’의 정보 유도 기능과 텍스트 응집성의 구현

5.1. 전남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채록한 구술담화 하나를 여기 소개한다.

(11) (전략) 여자한테 패적을 당하고, 그때 인자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을 때 과거를 본 것이 인자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그분이 당선되고 글로 많이 알아서 박식이 되고 이랬는디, 중국서 조선에 인재 하나 보내 도라고 인자 조선 임금한테다가 통첩을 했는께, 그 선비를 보냈단 말이지. 보내 가서 학문을 문답허니 어-지식도 있고 학문이 박식이거등, 그래서 인자 스승이 중국사람의 천자스승이 되면 사인이라는 벼슬을 줘, 어-사인 거고 인자 천자 아들을 그러니께 수년간 가리켰단 말이지. 그 천자가 생각해기로 조선사람을 오랫동안 중국다가 머무러 가지고 허는 것이 미한허기 때뒀로,
 “네가 느그 고국을 돌아가거라.”
 그니까 사인 벼슬을 해가지고 조선으로 나올 때, 조선왕한테다가
 “이분은 대국에 유공헌 사람이기 때뒀로 어- 자기 나라에 간다드라도 자기 백성이고 이러니 참 귀족으로 대접하라.”
 고 딱 그 명령이라니까, 뭐 지시를 했단 말이어.
 그래 서울에 오니까 왕이 치하를 허고
 “어- 그러면 금의환양을 했으니 느그 고향을 한 번 가거라.”
인자 내려오는디 궁께 어 이전에는 철도라고 허는 게 있어 부임을 허게 되면 그 나졸이 딸코, 삼십 육갑 데워고 그렇게 허는 판이여 광양 고을을 떡 내려 오니께 광양 원이 인자 크게 대접을 해서 참 국빈으로 대접을 해서 허는데,

(후략) (광양지역 민담)

예시문 (11)에 나타난 '인자'를 살펴보면, '인자'가 의미적으로 선행 문과 다른 정보의 문장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자'의 후행문 유도 기능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¹³⁾ 그 기능적인 면이 발화의 유도가 아닌 정보의 도입이라는 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견해를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11)의 예를 문장을 기준으로 한 정보 단위로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

13) 임규홍(1996:14)에서는 서술어 뒤에 '인자'가 실현되는 경우가 전체 용례의 3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이는 새로운 명제적 의미로의 전환 기능으로 '인자'가 쓰였다고 분석하였다. 또 이음말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22%의 용례 비율을 제시하고 특히 순행 전환의 의미를 갖는 접속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부사와의 결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들어 '인자'의 선행 정보에 대한 순행 전환의 기능 수행을 언급하였다.

(12)

(가) 여자에게 패척을 당함	
(나) 과거 응시	- ① 상경, 과거 응시 - ② 급제
(다) 중국에서의 출사	- ① 중국의 요청 - ② 중국 출사 - ㉠ 천자 아들의 교육
(라) 귀국	
(마) 귀향	- ① 왕의 귀향 허락 - ㉠ 귀향의 절차 - ② 원의 환대

표 (12)는 구술담화 (11)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를 개략적으로 간추린 것이다. 제시된 담화는 ‘여자에게 패척당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크게 (나)~(마)의 내용상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의 ‘과거 응시’의 단락을 보면, 이 단락을 구성하는 두 정보 단위는 각각 담화 표지 ‘인자’에 의해 유도되거나 혹은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의 ‘중국에서의 출사’나 (마)의 ‘귀향’ 단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인자’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술화자의 발화 습관상 ‘인자’가 도입되거나, 혹은 발화를 준비하기 위한 주저 형태(hesitation form)로서의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기로 한다.¹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13)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 (13) 가. 그때 인자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음께 과거를 본 것이 인자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 나. 그때 ∅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음께 과거를 본 것이 ∅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13)은 구술담화에 나타난 ‘인자’를 제거하여 대비시켜 본 것이다. (13나)는 일단 통사적으로 단문 넷이 연결된 복문이고, 의미적으로

14) ‘인자’가 사용될 법한 (라) 단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도 ‘인자’의 습관적 사용을 배제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도 4가지 텍스트 곧 4가지 다른 정보를 하나의 문에 담고 있는 상태다. 화자의 발화에서 각 문 단위마다 휴지를 두어 발화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방언 화자들은 ‘인자’가 사용된 (13가)의 경우를 더 자연스런 발화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인자’가 담화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13가)는 (14)와 같은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 (14) ① 그때 인자 신랑은 서울로 가서 / ② 그때 (인자) 마침 과거가 있음께 / ③ (인자) 과거를 본 것이 / ④ 인자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그러나 (14)와 같이 모든 문 단위 혹은 정보 단위마다 ‘인자’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동일 어구의 지나친 반복 출현으로 인한 글의 지루함과 글(말)이 유연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맥락 단절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문체적 고려 때문이라 보인다. 게다가 ②에는 ‘마침’이라는 시간 부사가 쓰여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구술자로서는 청자의 관심을 환기할 다른 방법을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③에서는 선행 발화와 시간상의 선후나 논리상의 선후가 분명하여 조건과 결과로서의 맥락을 쉽게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로 취급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술담화 속에서 새로운 정보로서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①과 ④)에서만 정보 도입을 위한 전환과 정보 유도를 위하여 ‘인자’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2. 정보를 유도한다는 것은 도입되는 정보를 선행한 구정보에 대해 신정보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신정보에 대해 관심을 표시한다거나 또는 해야 한다는 발화 의도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에 제시한 (13가,나)의 두 구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13나)의 발화는 시간의 선후에 따라 평범하게 진술된 내용일 뿐이다. 곧 발화자의 적극적인 정

보 전달의 의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3가)의 경우에는 ‘인자’의 존재로 인하여 발화 중 정보 초점을 표시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번에는 반대로 실제 발화에서는 ‘인자’가 사용되지 않은 표현인 (15가)와 필자가 임의로 ‘인자’를 부가한 (15나)를 견주어 보자.

(15) 가. ...고 딱 그 명령이라니까, 뭐 지시를 했던 말이여. / 그래 서울에 오니까 왕이 치하를 하고 / “어- 그러면 금의환향을 했으니 느그 고향을 한 번 가거라.”

나. ...고 딱 그 명령이라니까, 뭐 (인자) 지시를 했던 말이여. / 그래 (인자) 서울에 오니까 왕이 치하를 하고 / “어- 그러면 금의환향을 했으니 (인자) 느그 고향을 한 번 가거라.”

(15가)는 구술자가 정보 초점을 부가하거나 ‘인자’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후행 발화를 새로운 정보로서 취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접속부사나 시간상의 선후관계로 단순하게 발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인자’를 부가한다면(=15나) 이 구술담화를 듣는 청자는 ‘인자’가 도입하는 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곧 중국에서의 명령에 이은 귀국의 사실을 새로운 정보로 취급함으로써 새로운 배경의 텍스트를 도입하고 있고, 이 정보 도입은 뒤이어지는 왕의 치하와 귀향을 텍스트 전면에 도입하는 유도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5가)에 비하여 ‘인자’가 사용된 (15나)는 분명하게 텍스트의 전환과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라는 구술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문면에 혹은 발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5.3. 담화 표지 ‘인자’는 새로운 정보의 유도 기능과 함께 선행 발화 정보에 대한 후행 정보의 존재가 별개의 독립된 텍스트를 구성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 응집성을 유지하는 동일 텍스트내의 정보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12)의 도식에 나타난 (다-②-㉠)의 정보와 (마-①-㉠)의 정보가 그러하다.

(16) 가. 그래서 인자 스승이 중국사람의 천자스승이 되면 사인이라는 벼슬을 줘, 어-사인 거그 인자 천자 아들을 그러니께 수년간 가리켰단 말이지. : (다-②-②)

나. “어- 그러면 금의환양을 했으니 느그 고향을 한 번 가거라.” 인자 내려오 는디 금께 어 이전에는 철도라고 허는 게 있어 부임을 허게 되면 그 나졸 이 딸코, 삼십 육갑 태워고 그렇게 허는 판이여 광양 고을을 딱 내려오니 께... : (마-①-②)

(16가)의 밑줄 친 ‘인자’는 ‘사인’이라는 말에 대한 부연의 내용을 유도하고 있다. 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사인’에 대해서 개념을 제공하되 이를 선행 발화의 연속선상에서 응집성을 유지하는 채수용을 통한 결속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6나) 역시 ‘인자’는 귀향의 방식에 대한 부연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인자’는 전환의 기능 외에도 담화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5.4. 이상의 논의를 통해 텍스트 상에서 ‘인자’의 정보처리 기능을 (17)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7)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처리 기능

[도입 정보] + [<인자>-정보①] + [<인자>-정보②] + ……

- ↳ 정보 도입 기능 ↳ 정보 부연(설명)
- ↳ 정보 초점

담화 표지 ‘인자’가 정보 단위 조작을 통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17)의 기능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자’의 텍스트 기능이 정보의 유도 기능을 드러낸다는 점인데, 특히 이 정보를 선행 정보에 통합시키게 된다.¹⁵⁾ 둘째는 ‘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의 과정은 테마(theme)와 레마(rheme)의 연결을

15) 담화 표지의 텍스트 내에서의 통합적 성격은 Schiffrin, D., Tannen, D., Hamiton, H.E. (ed.)(2001:57)에도 언급되어 있다.

통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⁶⁾ 테마란 ‘정해진 것’이라는 뜻으로 주제부(topic)에 해당하고, 레마는 이 주제부에 대한 진술 또는 설명부(comment)에 해당한다.¹⁷⁾ 따라서 의사전달의 과정은 이러한 테마와 ‘인자’가 유도하는 레마의 연결을 통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답화 표지 ‘인자’는 레마를 유도하기 때문에 답화의 도입 정보에는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입 정보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구정보로 전환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여기에 응집되는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인자’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답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예를 통하여 앞의 생각을 좀더 검증해보기로 하자.

(18) 잠을 자고 참 택일을 하고 또 그나저나 나온 걸음이니까 서울 갔드라네. 또 인자 하숙집이 가서 하룻밤을 자는디 마침 그 집이 시험관 집이던 문양이라. 그래 시험관 머누리가 남편이 일찍 죽어 뿌렸어. 옛날에는 인자 한 번 시집을 가면, 더군다나 양반 집안에는 만 디로 시집을 못가니까 밤으로 저녁으로 밝은 밤이면 연못을 들고 뜰을 거닐었던 문양입니다, 옛날도. 그러니 선비는 널

16)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화자와 청자, 작자와 독자간의 의사 전달(communication)의 수단이다. 의사 전달의 내용은 정보의 형태로 조직되는데, 이 정보는 실제 세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일종의 상황(situation)이다. 이 정보는 그 구조와 전달 방식에 따라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정보의 분류 방법은 테마(theme)와 레마(rheme)로 나누는 것이다.

17)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문장을 전달 가치면에서 볼 때 진술의 출발점인 주제부와 진술의 핵심인 설명부로 구분하고 있다(Brinker 1985:52). 테마와 레마의 분석을 통한 연구는 60년대 Daneš에 의하여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주제’ 개념을 무엇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때 맥락적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알려진 정보, 이미 주어진 정보 또는 상황을 토대로 유추될 수 있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선지식(Vorwissen)과 세계지식(Weltwissen)에 의거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정보이며, 설명부는 주제에 관해 전달되는 그 무엇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설명부’는 맥락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보,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는 정보 또는 텍스트 맥락이나 상황 맥락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구조는 ‘주제들의 연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Brinker 1985:52~55).

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20)에 발견되는 바와 같이 ‘인자’가 한 문장에 한 번 이상 나타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바와 다르게 문두의 위치에 나타나는 등 불규칙하게 보이는 용례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20) 가. 그러자 인자 자기 시아버지가 인자 그 자기 메누리가 나가니까 동태를 본 것야.

나. 그래서 인자 이 골목 저 골목 탕기다가 인자 그 집을 표시를 해놨다가 과연 저녁 때가 되어서 인자 그 집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대자 영결이 나온다 이말이여.

다. 인자 딸 하나 낳아 가지고 엄씨 사드래. 딸 난 집이서 그래서 딸을 하나 부자집이다 여웠대.

담화 표지의 속성상 더구나 이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구술담화가 정제되지 않은 입말 형태라는 속성상 ‘인자’의 출현이 불규칙하거나 정제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발견되는 (20가,나)는 단일문 내에 복수의 ‘인자’가 나타난 것이지만, 발화 습관이나 발화 중의 시간끌기와 같은 화용적 습관에 연유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용례상의 ‘인자’가 모두 문의 특정 성분을 유도한다고 보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20가)의 경우를 “그러자 인자 자기 메누리가 나가니까 인자 자기 시아버지가 동태를 본 것야”의 구성이 어순뒤섞기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0나)의 경우에 ‘인자’가 절 구성을 수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예로 볼 수 있다.

(20다)는 구술담화의 첫 부분이지만,¹⁸⁾ 이 화자는 자신의 담화를 ‘인자’로 시작하고 있어, 일견 정보 유도를 염두에 두는 우리의 생각에 반증거리가 되는 듯 보인다. 필자는 이 경우의 ‘인자’를 텍스트의 응집성이나 결속의 기능의 표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

18) (20다)는 실제 구술담화의 도입 부분이다.

며, 다만 그 쓰임이 습관적 발어사의 용도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문제는 담화 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더 살펴볼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 글에서 다루려는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상론하지는 않고 다음 기회로 논의를 미루어 두고자 한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전남지역 방언화자들의 입을 통해 듣는 민담을 통하여 구술담화가 서사적 텍스트를 구성하기까지 작용하는 텍스트성의 조건들을 분석하고, 담화 표지로서의 ‘인자’가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구술담화는 외피에 해당하는 담화구조와 거기 담기는 내용으로서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지는 구성상의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술담화는 독화적 텍스트와 대화적 텍스트의 속성을 공유하게 된다. 독화적 텍스트는 연설과 같이 한 사람의 화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구술담화는 비록 독화적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두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체되지 않는 구두어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 또, 구술담화는 대화적 텍스트로서의 속성을 겸하여 갖고 있다. 대화적 텍스트는 복수의 대화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두적 형태의 텍스트이다. 독특하고도 중요한 것은 구술담화가 대화적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에 의해 담화와 텍스트 구술이 주도되는 화자의 일방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낸다는 점과 청자의 반응과 질문에 화자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화자 자신이 구술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복하기도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부가·부연하는 등의 즉흥성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술담화 속에서 작용하는 담화 표지 ‘인자’는 본래 갖고 있던 시간개념은 소실되고 대신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응집기

능의 표지로 활용된다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정보를 유도한다는 것은 도입되는 정보를 선행한 구정보에 대해 신정보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신정보에 대해 관심을 표시한다거나 또는 해야 한다는 발화 의도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 표지 ‘인자’는 새로운 정보의 유도 기능과 함께 선행 발화 정보에 대한 후행 정보의 존재가 별개의 독립된 텍스트를 구성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 응집성을 유지하는 동일 텍스트내의 정보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담화표지 ‘인자’의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을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인자’의 텍스트 기능이 정보의 유도 기능을 보인다는 점인데, 특히 이 정보를 선행 정보에 통합시키게 된다. 둘째는 ‘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의 과정은 테마(theme)와 레마(rheme)의 연결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전달의 과정은 이러한 테마와 ‘인자’가 유도하는 레마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담화 표지 ‘인자’는 레마를 유도하기 때문에 담화의 도입 정보에는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도입 정보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구정보로 전환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여기에 응집되는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인자’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담화 표지 ‘인자’가 실제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살피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인자’의 사용 범위가 거의 제한이 없을 만큼 비교적 자유롭고 널리 쓰인다는 점이다. 다양한 그 용례를 한두 가지의 성격으로 형식화하거나 이론화하는 일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양성의 밑바탕에는 화자가 자신이 구술하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실현하는 한 도구로서 ‘인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작은 성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아르케.
- 김광희(1996), "이야기 형성을 위한 문맥 응집성 실현의 방법 -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제36집.
- 김광희(1997), 국어 변형범주의 연구, 한국문화사.
- 김태옥, 이현호(1995), "담화 연구의 텍스트성 이론과 적합성 이론," 담화와 인지 제1권.
- 김희수 · 서상준(1983), "광양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13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노석기(1990), "우리말 담화의 결속 관계 연구," 한글 208.
- 유영대 · 이기갑 · 이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제1권.
- 이기갑(1997), "서남 방언의 의존명사,"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성재 이돈주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성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이원표(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임규홍(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제2권.
- Beaugrande, R. de,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 Brinker(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Devlin, K.(1990) *Logic and Information - Vol.1 : Infons and Situations*, Cambridge Univ, Press.
- Halliday, M.A.K.(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 Edward Arnold.
- Halliday, M.A.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 : Edward Arnold.
- Halliday, M.A.K. and R.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Ltd.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irin, Deborah(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irin, Deborah, Tannen, D., Hamiton, H.E.(ed.)(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ing Ltd.

김 광 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23-1
광양보건대학
545-703
전화 번호: 061-760-1457
전자 우편: khkim@kwangyang.ac.kr

KCS I